

민주 “주변국 동의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말라”

주한 일 대사관 방문 우려 전달

오늘부터 3일간 후쿠시마 등 방일 주민간담회·도쿄전력 만남 등 추진

방사성 물질이 든 오염수를 이르면 6월부터 바다에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현지를 방문해 방류 저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은 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주한 일본대사 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와 면담, 해양 방류 안전성 검증에 대한민국의 주변국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과 주변국의 명시적 동의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 이전에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문도 전달했다.

이날 양의원 의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섯 차례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네 차례나 통과됐다는 사실도 전달했다”며 “한일 양국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 에 나미오카 공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부족할 경우) 한국 정부를 통해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양의원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대응단 소속인 위성근 양의원 의원도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오염 현장 확인, 원전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간담회, 후쿠시마 공공 진료소 방문, 국내 언론사 일본 특파원 대상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성근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면담은 사실상 거부됐지만, 요청서를 전달하면 받겠다고 했다”며 “일본 공사에도 도쿄전력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나 정치인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문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관련, 위 의원은 “야당이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아니다”며 “야당 의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민적 우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마땅히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현지 방문은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의 현지 방문에 대해 “일본 의도에 끌려가 수산물 수입 문제를 공론화해 결과적으로 일본에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쌓이기 시작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다. 총 137톤으로, 삼중수소(트리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60종 넘게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저체설비(ALPS)로 정화했으며,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 5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공사 면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尹 거부권 양곡법 재표결 방침…“13일 본회의 재투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라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황당한 구상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 ‘전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거론하며 “집권당 지도부 1등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할 줄 상상도 못했다”고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표 등 민주 지도부 6·7일 광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전남대 ‘천원의 밥상’ 현장 방문

李, ‘개딸’ 비명계 공격 자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는다.

이 대표는 6일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고, 7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등 그동안 중단했던 ‘민생 경정 투어’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6일 오후 6시 박찬대·송갑석·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등과 함께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7일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의 ‘천원의 아침밥’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 등은 재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청취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부터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함께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계파 간 갈등 심화를 막고자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른바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 설득과 경청의 힘을 믿는다”며 “우리 당 4선 의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버스에서 내려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비판 촛불집회에서 경찰 버스 지붕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던 일부에게 다수의 주변 참가자가 ‘버스에서 내려와’라고 외쳐 공권력 행사의 빌미를 차단한 운동을 말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해남 출신 박광온 의원 민주 원내대표 출사표

해남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이 5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 그동안 많은 분과 오랜 시간 상의했다”며 “최종적으로 (원내대표 출마) 결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드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단 당의 단합과 통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희망을 만들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이 잘 맞겠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 대표도 당 지도부를 단일한 색깔로 구성했더니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말을 최근에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무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많은 의원 사이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당내 진영 간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과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치러질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꽃과 함께 떠나는
화순 고인돌축제
2023.4.21.^토~4.30.^일

2023
화순
화순고인돌유적지

개막식 & 축하공연

line up

4. 21. 금 18:00~

화순공설운동장



김호중



안성훈



다나카



임창정



한혜진



김잔디



영기



정다경



강예슬



코요태



하이키